https://doi.org/10.24300/jkscw.2019.03.65.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공격성, 우울이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남현지*
하은혜**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정신건강상태 특히, 공격성, 우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2차 패널 자료 중 3차 연도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2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변화궤적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에서의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휴대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휴대폰 의존도의 초기치가 높은 아동이 변화율이 작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1차년도 아동의 공격성은 휴대폰 의존도의 1차년도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 아동의 우울은 휴대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단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의 변화 추이와 그에 미치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휴대폰 의존성을 줄이고 올바른 휴대폰 사용과 나아가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차원에서의 조기개입 및 지원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공격성, 우울, 잠재성장모형, 휴대폰 의존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수료,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Ⅰ. 서론

2004년 법제화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는 4,10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총 106,66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6). 이는 2005년 1,709개의 지역아동센터를 43,749명이 이용하고 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센터 및 이용아동의 수에 있어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부분이 빈곤계층의 아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11항)까지를 의미한다. 아동기는 다양한 영역 발달상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기 빈곤은 아동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성장 발달과정에서 장기적인 많은 영향을 유발한다. 빈곤에 처한 아동은 물리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하여 외재화 및 내재화 심리정서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은 이후 모든 발달시기에서의 사회부적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실제로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비비곤가정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성장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Duncan & Brooks-Gunn, 1997), 비행, 공격행동, 위축, 사고문제행동, 신체증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적응 행동이 더 높으며 특히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불안행동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행동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유경, 2002). 따라서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이 사회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예방적 접근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에서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역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탐색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적 측면, 특히 부적응적인 측면에 대해 보고하였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cross-sectional study)로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urvey)는 드물다. 동일대상을 시차를 두고 반복 조사하는 패널 데이터는 인과관계의 설명이 용이하고 개인의 변화

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종단 연구방법인 잠재성장모형은 행동 발달 변화의 추이에서 개인차의 유의미성에 대한 검증이 유의미한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기 때문에(Duncan, Duncan, Strycker, Li, & Alpert, 1999) 본 연구는 잠재성장 모형을 실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잠재성장 모형 연구는 그들의 발달양상에 대한 장기적 이해와 그에 맞춘 적절한 개입방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패널조사'를 사용하여 3개년에 걸친 종단적 접근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실제로 최근 아동들의 생활 속에서 문제 행동으로 쉽게 보여질 수 있는 휴대폰 의존증상에 주목하여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여성가족부(2016)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이 전년과 비교하여 휴대폰 위험군 수가 증가하여 휴대폰 의존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2014년 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4)에서는 전체응답자 가운데 11%는 휴대폰이 울린다는 착각을 자주 하는 편이며, 24%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휴대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초등학생 휴대폰 이용자는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휴대폰의 건전한 사용 지도는 미비한 상태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폰 관련 연구도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휴대폰 사용이 증가하고 몰입하는 아동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의 휴대폰의존에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양육자가 부재한 방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점(김용희, 한창근, 2017)에서 휴대폰 의존증상의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휴대폰의존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해지거나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초조함과 불안함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인해 휴대폰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고 이에 의지하는 현상을 말한다(전상민, 2015). 신체적 측면에서 휴대폰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터널증후군, 시력저하, 숙면 방해 등의 문제점이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고(김소연, 노충래, 손유경, 2016), 휴대폰 때문에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성 측면에서는 휴대폰의 과도한 사용이 온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에만 익숙하게 만들어 면대면 대인관계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정복자, 박은아, 2016). 휴대폰 중독과 정서 및 행동문제

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휴대폰 중독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문제행동의 7개 척도(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한선희, 이승희, 2010). 이와 같이 아동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학업수행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최근 휴대폰을 통한 범죄의 노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연구와 개입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휴대폰 의존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예측 요인을 확인하여 장기적이고 조기적인 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휴대폰 의존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증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Morahan-Martin, 2005). 특히 우울은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다(김현순, 최영준, 2015).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에서도 우울이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양심영, 박영선, 2005).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휴대폰 등의 매체에 집착하는 현실 회피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집착과 몰입이 심해지면서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구현영, 2010; Young & Rogers, 1998). 더구나 초등학생은 연령이 어려 부모의 통제가 부족하게 되면 자신이 휴대전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울에 시달린다고 보고되었다(이정화, 2002).

휴대폰 의존을 예측하는 심리정서 요인으로 공격성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휴대폰 의존이 높아짐이 밝혀졌다(김진숙・문현주・황승일, 2014; 김혜수・배성만・현명호, 2007; 류경희・홍혜영, 2014; 손신영, 2013).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출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인터넷 환경은 다양한 좌절감을 표현하기 좋은 공간이 되며, 결과적으로 공격성이 휴대폰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한상훈・왕소정, 2009).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데, 이 익명성이 공격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상에서 언어적・정서적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되갚음을 하기가 용이하다(김지현・양지현, 2012). 따라서 공격적 성향이 강한 휴대폰 이용자는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에 그만큼 더 탐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연구에서도 휴대폰 의존과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보연, 2012; Yang, Yen, Ko, Cheng & Yen, 2010), 휴대전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주의집중이 저하되고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숙, 2014). 또한 휴대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뚜렷하게 나타냈다(김보연, 2012).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휴대폰 의존에 심리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우울과 공격성은 각각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대표하며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된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정서 특성을 예측요인으로 확인한 연구는 미비하다. 더욱이 이러한 심리정서 요인이 휴대폰 의존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정서 요인이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휴대폰 의존도의 변화양상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 관점에서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과 공격성이 휴대폰 의존의 초기치와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우울과 휴대폰 의존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은 어떠하며, 이 변화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우울이 휴대폰 의존도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및 변화 추이

1) 휴대폰 의존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

휴대폰 사용 연령이 어려지고 학령기 아동의 휴대폰 사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늘어나면서 학령기 아동 휴대폰 중독 및 의존과 관련된 연구(예: 김진숙・문현주・신정숙, 2016; 유현주, 2014; 이재연・권혜진・김윤정, 2014; 정평화 외, 2014; 조권형・김수환・한선관, 2014; 조영윤・고윤순, 2016 등) 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휴대폰의 문제적 사용, 휴대폰 의존 혹은 중독 등과 같이 휴대폰 중독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휴대폰의 문제적 사용에 대한 용어 사용이 '휴대폰 과다사용(이재연・권혜진・김윤정, 2014)', '휴대폰 의존(김경호・최용호, 2018)' 휴대폰 중독(김진숙・문현주・신정숙, 2016) 등으로 혼재되어 있다.

'휴대폰 의존' 은 '중독'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병리적 요소와 기존의 인터넷 중독의 요소 그리고 휴대폰이 갖고 있는 휴대성, 가용성 등의 매체적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성자,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의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휴대폰 의존은 '휴대폰 사용 통제력 상실로 인한 강박・의존, 내성, 금단 증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성자, 2012). 휴대폰 의존성의 개념 속에는 강박과 의존, 내성, 금단 증상 등과 같은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개념을 살펴보면, 강박과 의존은 휴대전화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신체,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내성은 휴대전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하는 것이고, 금단은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의 불안하거나 초조한 상태를 말한다. 생활장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 상태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휴대폰의존도 및 변화 추이

휴대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휴대폰 중독 경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Kuss & Griffiths, 2011; Whang, Lee& Chang, 2003)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접근성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아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Kim, 2013). 휴대폰 의존은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불안을 야기시키고 결국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강희양・박창호, 2012; 오강탁・이제은, 2013).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동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열악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낮다. 또한 또래와의 연결 및 관계유지 욕구와 관계에 대한 의존성, 부모의 보호와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휴대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영춘, 2016). 휴대폰 의존을 계층별로 분류했을 때 계층 간 차이에 따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가 맞벌이하는 가정일수록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2014). 이는 맞벌이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 자녀에 대한 감독과 지도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수정, 2014).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양육자 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4)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김영수, 2010) 양육자의 충분한 감독과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휴대폰 의존의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휴대폰 의존의 종단적 변화를 유형별로 잠재프로파일 성장 분석한 연구(이경은・염동문, 2018)에서 의존유지집단(46.8%), 의존감소집단(10.4%), 의존증가집단(42.8%)의 3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90%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휴대폰 의존도가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존감소 집단도 휴대폰 의존도 초기치 점수가 높은 수준에서 적은 수준의 변화율로 감소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휴대폰 의존성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휴대폰 의존이 중독으로까지 악화되기 전 조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휴대폰 의존의 장기적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공격성, 우울과 휴대폰 의존도

휴대폰 의존도를 주제로 한 연구들 중에는 우울과 공격성을 예측요인으로 확인한 연구들이 다수 발견된다(강필승, 2014; 김소영・홍세희, 2014; 김진숙・문현주・황승일, 2014; 이어리・이강이, 2012; 이윤희, 2013).

휴대폰 의존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강필승, 2014)는 우울, 공격성, 신체화 증상이 휴대폰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유사한 주제의 연구(양심영・박영선, 2005)에서는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을 예측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우울성향과 충동성을 확인하였고 이는 휴대폰 사용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우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휴대폰 의존의 대표적인 예측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김소영・홍세희, 2014;김혜수・배성만・현명호, 2007; 송은주, 2006; 이윤희, 2013; 장성화・박영진, 2010; Young & Rogers, 1998),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양심영, 2002)에서도 휴대폰 중독이나 의

존은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역시 휴대폰 의존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김숙, 2014; Yang et al., 2010), 의존 수준을 높이는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확인되었다(강필승, 2014; 김진숙・문현주・황승일, 2014; 김혜수・배성만・현명호,2007). 그리고 공격성의 하위요인으로 알려진 충동성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고성자, 2012; 김진숙・문현주・황승일,2014; 양심영・박영선, 2005)도 다수 있는데 이는 결국 행동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언급한 것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휴대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휴대폰 사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 나아가 유・아동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한 실정이다.

강명순(2007)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불안과 우울, 공격성의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는데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전호선・장승옥, 2014)에 비추어 볼 때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문제에 대해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기에 취약한 경제상황은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힘든 아동기를 겪게 하며 성인기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김현주, 2010). 특히 빈곤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동에 비해 낮은 아동이 더 우울하며(박다혜・장숙랑, 2013), 아동기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증가시킨다(Dumka, Roosa & Jackson, 1997; Wadsworth, Raviv, Compas & Connor-Smith, 2005). 또한 아동기 빈곤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공격성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어 부적응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등 부정적 발달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황윤미, 2017). 그러므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이 실제적 문제행동으로 확인되는 휴대폰 의존과 그의 변화추이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건강한 휴대폰 사용을 위한 개입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2차 패널 자료(2014년~2016년)를 사용한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차 패널은 목표표본(600명)을 설정하고, 16개 광역시·도별 모집단 인구를 토대로 한 제곱근 비례 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1차 패널에서의 한계를 보완하여 1년 이상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비도 1:1이 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센터의 선정은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한 조건일 경우 조사의 편의를 위해 1차 패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2차 패널 조사를 위한 원 표본은 150개 센터의 606명이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차 자료 중에서도 3차 년도의 휴대폰 의존도, 우울, 공격성 문항에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사례 235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2차 패널자료의 측정도구 중 공격성, 우울, 휴대전화 의존도의 3차년도 자료 분석으로 원척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앙지원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연구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및 문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휴대폰 의존도 측정 문항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과 같은 7문항으로, 이시형 외(2002)의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척도 중 휴대전화 의존도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각 문항별 신뢰도는 Cronbach .88 에서 .91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공격성과 우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격성과 우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측정 문항은 조붕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한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없이 울 때가 있다”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81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 문항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91 로 나타났다. 두 개의 척도 또한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으며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9.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휴대폰 의존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차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무조건 모형을 구성하여 그 발달궤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후 조건모형을 구성하여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의 휴대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 그리고 1차년도의 공격성,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공격성, 우울과 휴대전화의존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공격성은 평균1.94(SD=.62), 우울은 평균 1.75(SD=.62)이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평균이 1차 시기에 1.94(SD=.71)로 중간값에 미치지 못했으나 점점 평균이 상승하여 3차 시기에는 평균이 2.09(SD=.69)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 의존도는 2 3차 사이보다 1 2차 사이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격성,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35*)

변인		*M*	*SD*	왜도	첨도
정신건강	공격성1차	1.94	.62	.38	.09
	우울1차	1.75	.62	.83	.72
휴대폰 의존도	1차	1.94	.71	.51	-.31
	2차	2.07	.76	.60	-.08
	3차	2.09	.69	.55	-.08

공격성,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 연도의 공격성, 우울은 휴대폰 의존도 1차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1차 연도의 공격성, 우울, 1차 연도의 휴대폰 의존도가 2차 연도 휴대폰 의존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차 연도 휴대폰 의존도와 3차 연도 휴대폰 의존도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할수록 높은 휴대폰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공격성, 우울 및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상관계수

(*N=235*)

변인	공격성	우울	의존도1차	의존도2차	의존도3차
공격성	1				
우울	.55**	1			
의존도1차	.36**	.39**	1		
의존도2차	.19**	.25**	.37**	1	
의존도3차	.09	.12	.23	.42**	1

* p<.05. ** p<.01. *** p<.001.

2.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무조건 모형

휴대폰 의존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1-3차년도의 관련 측정변인을 활용하였다. 측정변인을 결합하여 한 변인으로 통합할 경우 3차년도 동안의 변화과정에서 생긴 결측치와 측정오차등의 문제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이 적합도가 다소 낮은

측면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차잠재성장모형을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적용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변화를 추정하였다. 고차잠재성장모형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으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선형모형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CFI와 TLI는 .9 이상, RMSEA는 .05에서 .08보다 작은 경우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1). 따라서 선형모형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무조건 모형으로 선형모형이 결정되었으므로, 휴대폰 의존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이를 통해 초기치는 1.92로 유의하며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율도 유의하여 한 해 평균 .075정도로 선형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화의 상관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에 의존도가 높았던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화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비교

(*N*=235)

모형	Chi-sq	dF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14.690	4	.853	.890	.107
선형모형	1.286	1	.996	.989	.034

〈표 4〉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의 추정치(무조건 모형)

(*N*=235)

미지수	평균 추정치	분산 추정치
초기치	1.952(.045)***	.268(.068)***
변화율	.075(.028)**	.077(.031)*
초기치-변화율 상관	-.503*	

3. 공격성, 우울이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공격성, 우울이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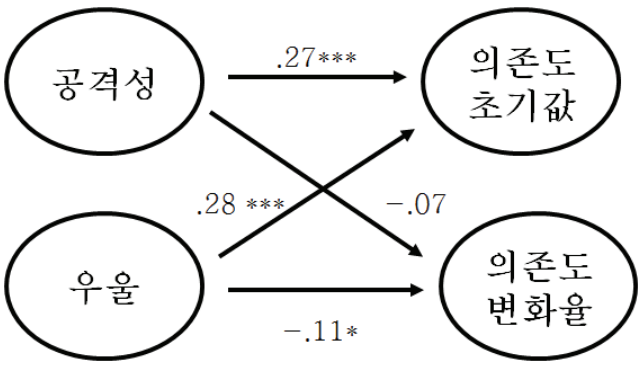
〈표 5〉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의 예측요인(조건모형)

(*N*=235)

1차년도 예측요인	휴대폰 의존도 초기치	휴대폰 의존도 변화율
공격성	.265***	-.071
우울	.280***	-.110*
TLI= .976, CFI=.991 RMSEA: .043		

* p<.05. ** p<.01. *** p<.001.

1차년도 공격성, 우울은 휴대폰의존도의 초기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동이 공격성을 가질수록, 우울감을 느낄수록 휴대폰의존도의 초기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차년도 우울은 휴대폰의존도의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우울감을 크게 느낀 아동일수록 휴대폰 의존도의 변화율이 작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공격성, 우울에 대한 구조모형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 우울이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지 분석한 결과, 휴대폰 의존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폰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휴대폰의 매체적 특성과 연구 대상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휴대폰은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휴대성과 편리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휴대폰은 늘 갖고 다니며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휴대폰이라는 매체의 특성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아동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점차 중독적으로 몰입하여 사용하게 만들기 쉽다(엄주리, 하은혜, 2014). 또한 본 연구대상이 속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2차 성징이 시작되고 급격한 신체적인 발달과 더불어 호기심이 왕성해져, 그에 따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극추구성향이 두드러지는 시기로(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조윤주, 2010), 이들은 자극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접촉을 점차 많이 하게 된다(Zuckerman, 1994). 이러한 아동의 성향과 휴대전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수준은 부모의 월수입이 낮을수록 높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dinho et al., 2014).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모의 관리나 함께 보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감독받지 않은 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감각충족적이고 매력적 매체인 휴대폰 사용을 온 종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여러 측면에서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휴대폰를 점차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아동의 휴대폰 사용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들의 올바른 휴대폰 사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공격성과 우울은 휴대폰의존도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크게 경험할수록 높은 수준의 초기 휴대폰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는 공격성, 우울의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들에게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더 높은 중독 경향성을 나타냈던 연구(장해진, 채규만, 2006)와 우울이 휴대폰 중독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장성화, 조경덕, 2010)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함께 우울이 휴대폰 의존을 예측하였던 것을(이어리, 이강이,2012)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이 휴대폰 의존에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들과(박영준, 조요한, 정종하, 최동호, 신성만, 2016; 하문선, 2014;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2014)도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1차년도 우울은 이후 3차년도에 걸쳐 나타나는 휴대폰 의존도의 변화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우울이 높은 경우에 초기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으므로 휴대폰 의존도가 증가하는 변화율도 작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변화율은 작았으나 휴대폰 의존도의 초기치가 높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 아동들의 휴대폰 의존도는 3개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회경제적 상태와 가족의 붕괴 및 거주의 불안정이 주요 우울증의 발생과 재발의 중요한 요인이며 관해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Gilman et al., 2003)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동의 우울이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효과가 장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중 우울감이 높은 수준의 아동들을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이후 휴대폰 의존 현상 나아가 휴대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접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특히,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되기 쉬우므로(박혜신, 2003), 휴대폰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스스로의 노력이나 부모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울, 공격성으로 확인 가능한 심리적 감정 및 정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휴대폰 중독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정서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고, 야외학습, 캠프, 견학 등을 통해 아동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박영준, 이정숙, 2016).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인 양육, 교육, 관리수준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심리 정서적 어려움의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오히려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우울,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별 심리상담,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밀착 케어를 통해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

고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차원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및 자기 통제력 향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센터에서 아동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일정 수준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휴대폰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지역사회와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심리 정서 상태와 휴대폰 문제적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위험 잠재군, 초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차등화 함으로써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하고 구체적인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독위험이 높은 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관리 주기를 더욱 짧게 하여, 이들의 휴대폰의 문제적 사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문제들을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올바른 사용습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 센터 아동들이 휴대폰 사용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들만의 여가활용 방법을 제시를 하거나 올바른 놀이문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참여 수업,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 활동 프로그램, 부모교육을 실행하여 아동이 방임되는 것을 예방하고 부모가 자녀의 심리정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휴대폰 의존을 줄 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 방법들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신건강상태 특히 공격성과 우울이 휴대폰 의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는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의존의 변화양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향후 이들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의 휴대폰 변화 양상을 보다 더 장기적 관점으로 살펴본 다면, 발달 시기별 적합한 휴대폰 사용 교육 방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인 심리정서 특성의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동은 가족, 또래관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 내에서 발달 양상을 달리하며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 내적인 요인을 달리 하는 관계적 요인의 영향력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아동의 휴대폰 의존 변화양상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명순. 2007. “한국의 빈곤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법제화에 관한 이론과 실천”. 일본 가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희양・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31(2): 563-580.

강필승. 2014.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성자. 2012. “초등학생용 휴대전화 의존성 진단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교육연구」25(2): 43-68.

구현영. 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16(3): 203-210.

김경호・최용호. 2018. “초등학생의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23(11): 211-218.

김보연. 2012.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47(3): 251-277.

김소영・홍세희. 2014. 중학생 휴대폰 의존도의 변화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25(3): 101-123.

김 숙.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의존 및 기능적 활용의 영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수. 2010. “빈곤가정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춘.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휴대폰 의존과의 관계”. 「예술 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6(3): 145-157.

김용희・한창근. 2017.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방임과 학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인권의식의 경로분석연구”. 「한국아동복지학」58: 141-170.

김지현・양지현. 2012.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아시아교육연구」13(4): 101-121.

김진숙・문현주・황승일. 2014.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27: 1-24.

김진숙・문현주・신정숙.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부모 양육 행동이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 지지를 조절변수로”. 「아동교육」25(3): 43-58.

김현순. 2014. “초기 청소년의 우울과 인터넷 사용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상담학연구」15(2): 773-790.

김현주. 2010.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17(12): 211-233.

김혜수・배성만・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12(2): 383-393.

류경희・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21(8): 157-183.

박영준・이정숙. 2016.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차별경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인과관계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20(1): 31-52.

박영준・조요한・정종하・최동호, 신성만. 2016. “스마트폰 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주의집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07-407.

박혜신. 2003. “빈곤가족과 빈곤문화: 빈곤가족의 가족사와 빈곤가족아동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희・전현정・정혜원.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15(4); 167-188.

서유경. 2002.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신영. 2013.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14(1): 1-12.

송은주. 2006.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15(3): 325-333.

양심영. 2002.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02-R24)”.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양심영・박영선. 2005.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향의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지」43(4): 1-16.

엄주리・하은혜. 2014.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및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자기효능감의 고・저 수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22(1): 357-374.

여성가족부. 2012. 2011 유아동 매체사용에 대한 연구.

_____. 2016. 2016년 휴대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오강탁・이제은. 2013. “전자정부의 진화와 정부 3.0”.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10: 161-174.

유현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학대경험, 정서문제,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4(12): 21-44.

이경은・염동문. 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변화유형분석과 유형별 특성비교 연구”. 「인문사회21」9(5): 971-982.

이수정. 201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분석”. 「한국컴퓨터학회 논문지」17(6): 1-8.

이어리・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21(2): 27-39.
이윤희. 2013.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휴대전화 과다사용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연・권혜진・김윤정. 2014. "초등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 학교적응,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16(20): 1087-1101.
이정화. 2010.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4: 106-134.
장성화・박영진. 2010. "휴대폰 중독 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논단」8(3): 25-41.
장성화・조경덕. 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0(11): 285-293.
장해진・채규만. 2006.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11(4): 839-852.
전상민 (2015).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13(1): 471- 482.
전호선・장승옥. 2014. "스트레스와 우울이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21(8): 103-129.
정복자・박은아. 2016.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 사용행동의 관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연구」1: 53-73.
정옥분・임정하・정순화・조윤주. 2010.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17(1): 385-398.
정평화・노충래・이경선・성민현・송재덕. 2014. "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이 학령기 아동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및 성별 비교". 「한국아동복지학」47(9): 93-123.
조권형・김수환・한선관. 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환경적 요인의 관계". 「정보교육학회논문지」18(4): 491-498.
조영윤・고윤순. 2016. "사회적 지지가 빈곤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6: 175-199.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4.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하문선.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과 심리 정서적 특성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15(4): 313-336.
한상훈・왕소정. 2009.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공격성에 관련된 조절변수의 효과 검증". 「교육종합연구」 7(3): 51-72.
한선희・이승희. 2010. "중학생의 휴대폰중독과 정서・행동문제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특수아동 교육연구」 12(3): 139-157.
황윤미. 2017. "아동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

스 만족의 조절효과". 「임상사회사업연구」14(1): 51-70.

Duncan, Duncan, Strycker, Li, & Alpert, 1999.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Duncan, G. J., & Brooks-Gunn, J.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Dumka, L. E., Roosa, N. W., & Jackson, K. M. 1997. "Risk, conflict, mothers' arenting, and children's adjustment in low-income, Mexican immigrant,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09-323

Gilman SE, Kawachi I, Fitzmaurice GM, Buka L. 2003. "Socio-economic status, family disruption and residential stability in childhood: relation to onset, recurrence and remission of major depression". *Psychol Med* 2003; 33: 1341-1355.

Godinho, J., Araújo, J., Barros, H., & Ramos, E. 2014.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media use in early adolescence". *Cadernos de Saúde Pública* 30(3): 587-598.

Ha, JH., Chin, B., Park, DH., Ryu, SH., & Yu, J. 2008. "Characteristics of excessive cellular phone use in Korea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783-784.

Kim, H. 2013. Exercise rehabilitation for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9(6): 500-505.

Kuss, D. R.,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3528-3552

Morahan-Martin, J. 2005. "Internet abuse: Addiction? disorder? symptom? lternative explanation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3(1): 39-48

Wadsworth, M. E., Raviv, T., Compas, B. E., & Connor-Smith, J. K. 2005. "Parent and adolescent responses to poverty related stress: Tests of mediated and moderated coping model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83-298.

Whang, L. S., Lee, S., & Chang, G. 2003. Internet over-users' psychological profiles: A behavior sampling analysis on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ogy & Behavior*, 6: 143-150.

Yang, Y., Yen, J., Ko, C., Cheng, C., & Yen, C.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problematic cellular phone use and risky behaviors and low self-esteem among Taiwanese adolescents". *Public Health* 10: 1-8.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25-28.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The effect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o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childre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Nam, Hyunji*
Ha, Eunhy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changes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examine the effect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on mobile phone dependency. The participants were 235 childre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The second panel data from the fourth-year to sixth-year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survey were analyze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was utili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steadily increased from fourth-year to sixth-year. Second, both aggression and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children's initial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In addition,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ir rates of increase of mobile phone dependency.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aggression and depression are important factors i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childre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This study also offers baselines for early interventions and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about appropriate use of the mobile phone by children in community service centers.

Key Word : Aggression, Depression, Latent growth model, Mobile Phone Dependency

[논문투고일: 2018. 12. 31 심사일: 2019. 01. 29 게재완료일: 2019. 02. 20]

*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hjdd@hanmail.net)
**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ceha@sookmyung.ac.kr)